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 살아지다1 ‘신기촌 사람들’				
구술자명	한기순	면담자	이경희, 이명순, 조영숙		
면담장소	신기시장 인근 카페	면담지원	-		
면담 일시	2019년 7월 11일	회차	1	시간	분 초
자료번호	Mi chuholCA-07-00001168				
구술 개요	10대 때부터 주안8동에서 살다가 4~5년 전 주안7동으로 이사함. 화장터는 신기촌에 있다가 부평으로 이사 감. 광명아파트와 쌍용아파트 일대는 논, 밭이었음. 중앙도자기가 진흥요업이 되면서 시장이 활기를 띠.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중앙도자기에 많이 근무함. 82년에 새마을금고 파출로 시작해서 분소장까지 맡고 명예퇴직함. 시장 사람들과 가족같이 지냄. 사람들에게 정이 들어 신기촌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게 됨. 5개로 나누어진 신기시장을 통합해야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				
주요 색인어	주안8동, 화장터, 주안7동, 토개공, 신기촌, 중앙도자기, 쌍용아파트, 진흥요업, 5번 버스, 신기시장, 새마을금고, 수금, 퇴직, 수기, 인심, 만석동, 철거민, 크림빵, 미디어축제, 김장, 통두레, 통합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소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대 되기 전부터 주안8동에 거주함. 주안8동 옆으로 화장터가 있었음. - 주안7동으로 이사 온 지는 4~5년 정도. 7동에서 직장을 다녀 7동에서 활동을 많이 함. - 한신아파트와 진흥아파트 사이 텃밭 하는 곳에서 살았음. - 아이(72년생)가 5~6살 때, 텃밭 일대를 토개공에서 정리하면서 보상을 받아 아래로 내려오게 됨. 					
2. 신기촌 일대에 대한 기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도자기가 나가면서 쌍용아파트가 들어섰고, 진흥요업(구 중앙도자기)이 쌍용아파트 일부를 차지하게 됨. - 화장터는 중앙도자기가 있을 때 (신기촌에) 있다가 지금은 부평화장장으로 이사 감. - 막내 동생(67년생)이 4살 때 모래마을에 살다가 아버지와 함께 주안8동으로 옴. - 중앙도자기와 화장터를 거쳐 신비마을로 넘어 다녔음. - 광명아파트 일대는 논이었고, 광명아파트 너머로는 밭이 있었음. - 쌍용아파트 정문에서 농협 쪽으로 5번 버스 종점이 있었는데 그 일대가 전부 양배추밭이었고 땅이 질어 장화를 신고 다녔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번 버스 종점은 이후 몇 차례 변경됨. 		
<p>3. 중앙도자기(진흥요업)(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도자기가 있을 때는 신기시장이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었음. - 중앙도자기가 없어지고 진흥요업이 생기면서 진흥요업 사람들이 월급을 소비하며 시장이 활기를 띠. - 쌍용아파트, 진흥아파트가 생기면서 남부상가가 활성화됨. - 어렸을 적 여자는 물론 남자들도 중앙도자기에 많이 근무했음. 	-	
<p>4. 새마을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년에 새마을금고 파출로 시작해서 시장 전체에 수금하러 다님. - 처음에는 가방 하나 메고 도보로 다녔음. 나중에는 자전거, 오토바이, 프라이드 왜건을 타고 다님. - 83년에 입사하여 새마을금고 분소장까지 했다가 명예퇴직함. - 퇴직 이후 가게를 8년 운영함. 가게 운영 중 새마을금고 이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이사를 맡고 있음. - 새마을금고 공제로 인천에서 1등을 해 여행이나 강의를 다니기도 함. 	-	
<p>5. 신기촌 사람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3년에 주안3동 일부가 주안7동으로 분리됨. 같은 시기에 중앙도자기, 쌍용아파트가 지어짐. - 5번 버스 종점이 쌍용아파트 앞에서 다방 앞, 인하대 쪽으로 점차 옮겨감. - 김종린 회장님과 3대째 알고 지냄. 임흥락 씨와는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함께 함. - 시장 사람들과 가족같이 지내며 돈을 맡아 주거나 보험을 들어주기도 했음. - 당시에는 통장을 수기로 적었음. - 옛날에는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가게가 많았음. 만나면 뭐라도 나누어 주려고 하는 등 인심이 여전히 남아 있음. - 만석동에서 철거민들이 많이 이주해 옴. 	-	
<p>6. 진흥요업(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흥요업 1, 2공장에서는 12시간씩 근무했으며, 8시부터 맞교대함. - 식사는 한 끼를 제공하고 잔업이 있을 때는 크림빵을 줌. 	-	
<p>7. 신기촌에 대한 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 가좌동에 입주권을 얻을 기회가 있었으나 사람들에게 정이 들어 신기촌을 떠나기 싫었기 때문에 거절함. - 입주권 대신 천만 원을 받아 10년 전에 집을 이사 온 지 4~5년이 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축제, 불우이웃돕기 김장, 꽃 가꾸기, 구청 교육, 통두레 활동 등 다양한 마을 활동에 참여함. 		
<p>8. 신기시장에 필요한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5개로 나뉜 신기시장을 통합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함. - 큰 도로 면에 있던 개울을 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음. - 주안7동은 서로 어우러져 사는 옛날 정서가 많이 남아 있는 편. 서로 먹을거리를 나누어 먹기도 함. - 남부시장 일부 상점에서 주차장 증설에 대한 요구가 있음. - 충남 논산이 고향으로, 10대 때 가족과 함께 (인천에) 올라옴. 	-	